

육우자조금, '369 육우버거 시식회' 진행

즉석 육우버거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육우고기 알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주)에서 국내 산 쇠고기 우리육우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화문역(5번 출구), 양재역에서 '369 육우버거 시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369'의 의미는 '365일, 우리육우와 함께하자'와 '육우데이(6월 9일)' 숫자를 조합한 것으로, 369개의 육우버거가 3일간 각 장소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됐다. 이날

준비된 육우버거의 파티는 육단백질 함량이 높고 육즙이 풍부한 목살부위를 이용해 푸드트럭에서 즉석에서 조리하여 무료로 제공됐다. 시식회와 더불어 룰렛돌리기, 퀴즈게임 등 육우고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됐다.

최현주 위원장은 "육우는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체중조절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소고기" 라면서 "우리육우가 더욱 사랑받을 때까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㉞